

# 광주교육청, '혁신교육'

# 선도 교육청 자리 매김

## 교육부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 우수 평가

광주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공교육 혁신 강화' 영역은 국정과제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중심의 평가지표로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인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교육과 학교문화혁신을 추구한 성과가 인정받은

것이다. 혁신학교 37기의 질적 도약을 위해 「빛고을 혁신학교, 다시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다」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모든 학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 실천에 힘썼다. 특히 광주형 혁신교육지구인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해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과 학생 주도·기획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영역에서 다문화학생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예비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등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어교육과 공교육 적응을 위한 노력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혁신교육의 질적 성장에 박자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우수한 영역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진도서초 가사도분교장 병설 유치원 개원



진도서초등학교 가사도분교장에 유치원이 들어섰다. 진도서초등학교는 지난 9월 19일 가사도분교장에서 병설 유치원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민의식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유치원 관계자, 마을 이장과 주민, 학부모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개원식은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로 원감의 개원식 설립 과정 보고, 답안 및 학생 소개, 축사, 축하 영상 감상,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 소개 순서에서는 원장이 한 명씩 사방 목걸이를 걸어주며 환영해 주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 가사분교 친구들이 만든 축하 영상은 보는 사람들을 흐뭇하게 해줬다. 가사도에 병설유치원이 들어서기까지는 여러 해 동안 교육당국과 지역민들이 수년 동안 애쓰는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첫발을 댄 유치원은 답안 교사 한 명과 유치원생 3명으로 적은 규모지만 넓은 교실과 자료실, 샤워실, 화장실, 놀이터 등 유치원으로서 제대로 된 시설과 자료를 모두 갖췄다.

## 전남 1호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시동'

담양 봉산초 양지분교 폐교부지 2021년 개교 예정 추진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남1호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작업이 본격화된다. 전남도교육청은 23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이하 '대안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협의회에서 창의적인 대안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공간 조성을 위한 과제들을 설명하고 설립·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대안교육을 연구·실천해 온 대안교육전문가와 교육위원, 교육관계자,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대안학교 지원단은 이날 협의회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학교 공간 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공교육에서 시도되기 어려운 혁신적인 민·관 협업형 대안교육과정이 학교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립 대안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교육구성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남 최초로 설립되며 기숙형으로 운영된다.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담양군 봉산면 양지리 봉산초 양지분교(2013. 3. 폐교)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40억원과 전남도교육청 대응투자 30억원, 담양군청 10억원 등 총 80억원을 재원으로 설립된다. 학교가 들어설 봉산초 양지분교 폐교는 1만여 평 부지에 수령 100년 느티나무와 50여 종의 이름드러 각종 수목들이 교정을 둘러싸고 있어 아름다운 학교숲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대안학교 설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국내·외 우수 대안학교 선진지 자원의 지속적인 수집·분석을 바탕으로 지원단과 다각적인 검토·보완 작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 여수Wee센터, 샘-품 지원단 집단 체험

여수교육지원청(학교지원센터-주관)은 21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샘-품지원단 '디딤나래! 나래를 펼쳐라'라는 주제로 집단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샘-품지원단은 교사 멘토와 학생 멘티의 심리·정서적 지원, 미래설계, 대인관계 기술 등 다

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멘토링 사업으로 학생 멘티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꿈과 끼를 갖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이번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천연염색의 유래 및 색깔을 낼 수

있는 염료 등에 대해 이해하고 쪽 염색을 이용한 스카프를 만드는 체험을 직접 시험하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색다른 경험으로 쪽 염색에 관심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다양하고 색다른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계기가 되었다.

## 보성교육지원청, 학생 2차사고 예방 안전단열필름 부착



보성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교실출입문과 유리창 파손으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성화천중학교 교실 유리창 및 출입문에 안전단열필름을 부착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 섰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회천면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장 경청을례에서 나온 내용으로, 유리파손에 의한 학생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유리는 학교 내의 위험요소 중 하나로 두께가 얇아 충격을 받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고 파손된 유리 조각은 2차 사고를 야기하여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보성교육지원청은 유

리창 파손시 학생들의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성화천중학교에 외부 충격으로 부서지는 유리파편이 튀지 않는 안전단열필름을 시범적으로 부착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이후 2020년에는 관내 모든 학교에 안전단열필름 부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남근 교육장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가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 제1호 매입형유치원 교명, '새미르유치원' 결정

광주시교육청 최초 매입형유치원인 (가칭)신용2유치원(현 사립 한스유치원) 교명이 '새미르유치원'으로 결정됐다. '새미르유치원'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되어 2020년 3월1일 개원 예정이며 복구 신용동에 위치해 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

모, 시의원, 시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립학교개교심의위원회는 23일 신용의 순우리말인 '새미르'로 교명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공개 응모한 (가칭)신용2유치원 교명 64건 중 지역성·상징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개교심의위원회에

서 결정한 내용을 담은 광주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광주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미르유치원'은 지하층에서 3층의 건물로 연면적은 1958.06㎡이며 총 8학급(일반 7학급, 특수 1학급)으로 학생 정원은 159명이다.

